

■ 학교탐방 - 대연고등학교

웅지와 성실로 '미르'의 기상 한껏 펼쳐

우듬지부터 단풍이 들기 시작한 교정의 나무에 시월의 가을햇살이 내려앉았다. 앞으로 평화공원과 조각공원, 양 옆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차들의 왕래가 잦은 큰 길을 끼고 있는 데도 도시의 소음은 공부의 열기로 가득 찬 학교의 담장을 넘지 못하는 듯 의외로 조용하다. 여기는 남구의 사학명문으로 승천하는 용의 지세 즉 미르의 기상을 지닌 터, 대연고등학교(교장 김기영)다.

대연고는 1986년 5월 학교법인 승웅학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성실과 웅지를 신조로 민족의 동량지재(棟梁之材)를 육성한다"를 건학이념으로 1988년 3월 개교했다. 설립자 양용지 현 재단이사장은 육영사업의 원대한 포부를 지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타계한 선친 고 양승웅 선생의 뜻을 받들어 육영사업에 발을 디뎠다. 현재 30개 학급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웅지(雄志) 성실(誠實)'을 교훈으로 학문과 인격도야에 힘쓰고 있다.

올해까지 22회 9,394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대연고는 지역사회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보내고 싶어 하는 학교로서 독보적이다. 거기엔 명문고교라는 이미지가 한몫을 차지한다.

명문은 거저 얻어지는 것도 아니며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더욱 더 아니다. 엄한 규율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목표의식 고취로 인한 학생들의 자율적인 변화 분위기 등 규제와 자율, 축적된 교육 노하우, 사교육이 없는 학교로 만들려는 교사들의 노력이 명문고교로 자리매김하는 원동력이 됐다.

요즘 공부는 '자기주도학습'이 대세다.

대연고는 자기주도학습을 이끌어내기 위해 학생들에게 동기유발과 목표의식을 심어주는데 주력하고 있다. 학기 초 실시하는 1박2일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미래 사회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로서의 정



대연고는 규제와 자율, 그리고 축적된 교육 노하우로 사교육이 없는 명문사학으로 정평이 나있다. 봄철 아름다운 교정.

자기주도학습 이끌어 명문대 '등용문' 명성 학부모가 보내고 싶은 명문고로 자리매김 미르비전2020계획 수립 재도약 발판 마련

신교육을 강화하고 수업이 끝난 후 정독실 운영으로 학생들의 변혁열기를 유도하고 있다.

대연고는 단순한 지식전수로 명문대 합격생 머릿수만 늘리는데 전념하는 학교는 아니다. 지(知), 덕(德)을 겸비한 인격체로 성장시키기 위해 '학생의 기본자세를 갖춘 생활지도'를 우선으로 한다. 교문을 들어서면 순간부터 하고 시까지 단정한 용모, 올바른 말씨, 상호 존중, 질서, 예의 등을 통해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인성교육에도 소홀함이 없다.

개교 원년부터 매년 실시한 교사의 해외연수는 당시 흔하지 않았던 과격적인 사례였다. 비용 전액 재단측 부담으로 실시한 해외연수는 동남아, 동·서유럽, 금강산 등 해외로 몸을 앞서 배워 세계화 교육에 진일

보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는 이사장의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대연고는 2006년 일본 히로시마 소토쿠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수학여행단의 상호방문과 한일교류로 글로벌시대를 맞아 시야를 넓히고 있다.

대연고는 창의적 실력을 갖추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대연인을 육성하기 위한 '미르비전 2020'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또 한 번의 용트림을 준비하고 있다.

첫째, 통합논술교실의 운영이다. 매일 학급에 배부되는 윤록(輪讀)도서를 읽고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감상문 쓰기, 폭넓은 독서를 통한 글쓰기 즉 논술교육으로 논리적 사고력 증진을 꾀한다.

둘째,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의 학습지도다. 영어, 수학 교과보충학습

지도로 학습부족을 방지와 성적향상을 위한 동기유발을 목적으로 희망자에 한한다.

셋째, EBS 수능강의 이용 활성화 방안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키울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희망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자율학습과 정독실 운영으로 예습과 복습, 개인별 보충심화학습의 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다섯째는 인성교육이다. 학생폭력 없는 학교, 담배연기 없는 학교, 휴대전화 벨소리 없는 학교를 만드는 학교생활 3無운동이다.

대연고는 미르비전 2020을 통해 명문고교라는 전통을 연인세에 이어 나갈 것이다.

이두래 기자

? 미르란 용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대연고가 위치한 곳이 '웅수' 지역으로 용과 관련된 전설이 남아있어 미르를 학교 상징으로 삼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 대사관 문열었다

아시아공동체학교, 9개국 문화 전통 살린 교실 꾸며

문현4동, 옛 배정초등학교 자리에 다문화 대안 학교가 생겼다. 바로 아시아공동체학교인 '다문화 청소년 대사관'이다.

'다문화 청소년 대사관'은 부산 지역 20여 개 초, 중, 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프로그램까지 진행하고 있다. 국내최초의 다문화 창과관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폐교된 지 10여 년이 지나 낙후되었던 교실은 이제 말끔하게 단장되어 가고 있다. 교실마다 아시아 공동체학교 학생들이 속해있는 각 나라의 명칭도 걸려있다.

대사관은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케냐(아프리카), 페루(남미), 멕시코 등 9개국이다. 9개국의 대사관은 1, 2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담고 있다.

러시아대사관은 제과제빵 조리실이다. 여러 나라의 제과와 제빵을 만들어 보면서 제과와 제빵에 갖든 문화를 느껴 볼 수 있는 곳이다. 러시아 문화를 체험할 수 있으면서 각 나라의 빵과 과자를 만들 수 있다. 기술보조기금 후원으로 제과, 제빵기구를 기증받았는데 지금은 학부형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중국대사관은 생활체육 교실이다. 여러 나라의 체육기구를 갖춰 놓고 그 기구를 활용하여 건강을 다질 수 있는 곳이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기구뿐 아니라 조금 아쉬웠다. 집에서 쓰지 않고 묵혀 둔 헬스기구나 그 밖의 운동기구도 기증 받는다.

베트남대사관은 복가페다. 그림과 문자를 통해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다. 다양한 나라의 활자화된 책이나 그림을 비교해 보는 것도 그 나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다문화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러시아·베트남 등 9개 나라의 특성을 살려 만든 다문화 청소년 대사관이 개관했다. 러시아관에서 학생들이 제과제빵기술을 익히고 있다.

페루대사관은 밴드, 비보이 교실이다. 율림이 적은 바닥재와 사면으로 둘러쳐진 거울을 보면서 춤과 악기를 연주해 볼 수 있는 다문화 청소년 화합의 장이다.

일본대사관은 디자인실이다. 일본풍의 그림이나 인형, 기모노 등이 진열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양재나 바느질을 배울 수 있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재봉틀이나 반질교라 등 바느질에 필요한 자재들이 갖춰져 있다.

미국대사관은 영상제작상영관이다. 외국인 자원봉사팀으로 구성된 이 교실은 영상을 제작하여 보여주는 상영관이다.

필리핀 대사관은 어린이 교실이다. 장난감을 비롯한 그림이나 책이 준비되어 있다. 장난감은 기증 받은 것으로서 도서 대출처럼 빌려주기다 한다. 아직 장난감이나 그림책이 많이 부족한 상태다. 아파트 부너회 같은 곳에서 쓸 만한 장난감이나 그림책이 있으면 연락

을 바란다. 학교에 연락을 하면 관계자가 달려간다고 한다.

케냐대사관은 흙도자기실이다. 케냐의 푸른 초원이 느껴지는 그림이 압도적인 이 교실에서 흙으로 여러 나라의 도자기를 빚을 수 있다. 케냐를 다녀와서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그 밖의 귀중품도 기증받는다.

멕시코대사관은 인문학강의실이다. 넓찍한 강의실은 인문학 강의뿐만 아니라 회의 및 초청 강의를 받을 수 있다. 모임이나 단체의 회의 장소로도 손색이 없다.

박효석 교장은 "다양한 국가의 청소년들이 만나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1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사관 전시품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후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633-1381

박능숙 기자

부산디자인고 예열전 내달 22일

부산디자인고등학교(교장 정일빈)는 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교내에서 제39회 작품전시 축제 예열전을 연다.

지난 2010년 3월 용호동으로 이전한 부산디자인고의 예열전은 도자디자인과, 인테리어디자인과, 그래픽디자인과, 영상미디어디자인과 학생들이 1년간의 수업결과물과 도자기, 목가구, 공예품 등을 전시, 판매하는 축제이다.

전시작품은 시중의 기성작품들과 차별화한 수준 높은 것들로 축제를 기념해 저렴하게 판매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문자가 초청전도 함께 열려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620-2600



학교폭력 예방 연극 호응 남구는 지난 12일 동향중학교 강당에서 학생과 교사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연극 '엄마, 나 아파요'를 상연해 호응을 얻었다.

인성교육이 학력신장 비결

김기영 교장

2010년 3월 제5대 교장으로 취임한 김기영 교장을 만났다. 오랫동안 교사의 길을 걸어온 김 교장의 교육철학은 '사람다운 사람, 창의력 있는 일꾼양성을 위하여 인성교육에 힘쓰는 것'이다. 명문

고교로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비결을 묻자 "가장 이상적인 학교는 실력 있는 학생, 존경 받는 교사, 신뢰 받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이상적인 학교를 만들려는 학생과 교사들의 노력이 그 비결"이라고 말했다.

수시로 바뀌는 교육제도와 교육이 점수와 수치로 계산되는 교육

계의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퇴임 1년을 앞둔 김 교장은 이런 안타까운 교육현장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교장은 "사람이 사람을 만들지 제도가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만의 울분을 신념을 피력했다.

"명문고 학생들은 복자이며 자세부터가 다르다"고 말하는 그는 기본을 갖춘 자에서 "올바른 품성이 길러지고 실력 있는 학생이 나온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두래 기자

동해참가자미희집

대표 : 김 성 희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동 1756-20번지

단체회원 ☎633-0151

참가자미희 특대 : 100,000 / 대 : 80,000
중 : 60,000 / 소 : 50,000

모듬회 특대 : 100,000 / 대 : 80,000
중 : 60,000 / 소 : 40,000

점심특선 : 13,000
생우럭당 : 10,000
쌀 : 8,000
가자미물회 : 12,000

문인대방랑, 문물사거리, 경성대방랑, 마이마트, 구자영내과의원, 교촌치킨, 동해참가자미희집, 동명여자대학교이마트

웃음의 대중화 선언!

웃음·유머교실 회원모집 2개월 3만원 (수시모집)

☎010-4567-2233 (부경대 대연캠퍼스 정문 앞 4층)

조성영 웃음연구소
「웃음·유머 회원모집」
매주(목) 오전 11~12시
매주(토) 오전 11~12시
장소 : 부경대학교 정문앞 4층
• 선착순 100명 •
특별수강료 2개월 : 3만원

조성영 웃음연구소
「자격을 취득, 특별반」
매주(월) 오전 11~12시
매주(월) 저녁 7~8시
장소 : 부경대학교 정문앞 4층
• 선착순 100명 •
특별수강료 3개월 : 9만원

부산예술회관
「웃음·유머 회원모집」
매주(화) 오전 11~12시
장소 : 부산예술회관 4층 (TBN교통방송국 옆)
• 선착순 200명 •
특별수강료 2개월 : 3만원

• 한국웃음치료 연구협회 회장
• 2011년 웃음·유머 명장사 선정
• 마더즈(유방암전문)병원 웃음건강 문화센터 원장

• TBN교통방송 「웃어요! 웃어봐요」 생방송 출연
• 웃음치료전문가 1급, 유머학박사 1급 자격증 취득가능
• 2011년 561회 명강의에 빛나는 웃음박사 조성영 직접 강의

윌리스 병원

중풍·치매·파킨슨병 / 두통·어지럼·이명클리닉 개소

신경과 / 내과 / 안과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한방과

남구청 입구, 못골전철역 도보 2분 **요양병동 운영**

Tel. 638-7575 www.willishospital.co.kr

고객을 왕자처럼 모십니다.

왕자익스프레스

언제 어디서든 119같은 이사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업체를 선택해 보십시오. 장거리 운반시에도 책임자가 도착지까지 책임을 다해 모십니다.

포장이사 **일반사무실이사**

중량물 취급 숙련자 항시 대기!

문의 : H.P 010-9575-2245 Tel 611-3000, 633-1212

아모레 퍼시픽 **헤라·설화수** 주부사원 모집

재미있게 같이 일해요!!!

- 급여와 의료비, 경조비, 교육비 등 지원
- 육아 보조금 지원
- 10시 출근, 일·공휴일 휴무
- 기타 다양한 지원혜택

헤라·설화수
판매·상담
☎ 627-2225

친절상담 → 최경숙 부장

주·야 직통상담 : 011-579-1122

아모레 퍼시픽 **남부오름지점 T.627-2225**

단전호흡, 기체조, 명상 **국선도**

우리의 몸이 **국선도**를 필요로 할 때

-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며 화를 자주 낸다
- 불면증으로 항상 수면이 부족하다
- 각 관절통증, 특히 목, 허리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 온 몸이 빠근하고, 살이 찌는 것 같다
- 낯선한 틈새를 갖고 싶다
- 학생의 경우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 당뇨 초기증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오전 10:30~11:50
오후 06:40~08:00

국선도 대연수련원 ☎ 612-9393
(대연5동 기아자동차 옆)